

노 재 승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심상표출에 의한 조형적 이미지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환경미술학과 조각전공

서 광 옥

심상표출에 의한 조형적 이미지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재 승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환경미술학과 조각전공

서 광 옥

인 준 서

서광옥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논문개요

예술 활동이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이루어지며 기억과 경험이라는 두 개념에 의해 새로 생겨나는 인간들의 활동이며, 경험에 의해 기억되는 시간의 흐름속의 이미지들이고 그 흔적을 담아 자아의 내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려함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조형언어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은 자기로부터의 출발이며 예술가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씩 표출되어 독자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어떤 공간과 만날 때 그 공간을 채우려하며 질서, 균형, 논리, 명료성 같은 개념들에 의해 예술적 효과를 성취하려는 욕망을 지닌다.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활기차게 표현되어지는 창조적 이미지들이다. 모든 이미지는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내지며 개인의 경험에 따라 형성된 감성이나 심성 등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감각하고 지각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사고는 경험을 넘어서지 않고 경험에 의존하여 모든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고에 의한 표현운동은 외부로부터 지각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이들의 지성에 의하여 이해되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또는 어떤 것을 기대하게끔 하는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고 표현되어 지는지를 본인의 심상을 이입시켜 조형화된 예술적 작품으로 나타내고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작품의 배경으로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반응하는 지에 언급을 두고 작품을 어떤 방향으로 표현 할 것이지 전개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작품의 이론적 배경으로서는 시간과 환경에 적응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는 체험에 의하여 각인되어지는 우리들의 기억과, 변화와 지속으로 생겨나는 망각에 대하여 논하였고 그러한 기억과 망각으로 인하여 잠재되어 있던 심상이 어떻게 표출되어 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의해 형태화된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으로 간단히 결론짓고 앞으로의 작업에 있어 정제되어진 변화는 물론 심도 있는 작업세계를 펼칠 수 있는 연구의 의지를 밝혔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형성의 이론적 배경	3
1) 기억과 망각	3
2) 심상의 현상화	6
2. 형태적 근거	8
1) 도입된 형태	8
2) 표현된 형태	11
3. 작품 분석	13
III. 결론	27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어제의 부재, 1200 x 540 x 900 mm	13
【작품 2】 어제의 부재, 오석, 190 X 190 X 1240 mm (2점)	15
【작품 3】 어제의 부재, 오석, 660 x 190 x 480 mm (2점)	17
【작품 4】 어제의 부재, 이태리 대리석, 320 x 80 x 320 mm	19
【작품 5】 어제의 부재, 오석, 400 x 300 x 220 mm	21
【작품 6】 어제의 부재, 마천석, 480 x 480 x 300mm	23
【작품 7】 어제의 부재, 오석, 100 x 50 x 1150 mm	25

I. 서 론

자연의 모든 기운은 생성과 변화와 소멸을 거듭한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들의 기억되어지는 모든 사물이나 경험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나 과거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속에 침식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은 역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도 그 흔적이 과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심상으로 존재하며 현재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다양한 체험으로 많은 기억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삶은 이미 과거가 되지만 과거의 이미지들은 현재의 지각과 혼합되어 현재의 경험을 획득된 경험으로 더하여 풍부하게 하면서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예술의 터전이 되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상황을 세심한 관찰로 예민하게 지각하면서 체험을 통한 이미지를 작품 속에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남아있는 흔적들이 어떻게 지각되고 기억되는지 또 잃어버린 잠재의식 속에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 의식 저편에 있는 이러한 기억과 망각의 파편들을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형상화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진실한 내면세계를 표출하려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억에 의해 각인된 내면속의 심상세계를 모색하면서 본인이 추구하는 작품세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감각적이고 이성적으로 지각되고 각인된 여러 경험과 지식들, 그리고 삶의 지속과 변화 속에서 지워져버린, 잠재되어버린 우리의 심상들을 작품의 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시간의 흔적을 통하여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하고 계속 변화하는 본인 내면의식을 미적인 방법으로 조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II. 본 론

1. 작품형성의 이론적 배경

1) 기억과 망각

우리는 태어나 세계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오감이라는 감각기관”¹⁾을 통하여 외부세계를 느끼게 된다. 즉 지각하는 것이다.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신적인 심상이나 오감각외의 공감각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동물이다.

우리 인간과 같은 생명체들이 느끼는 지각은 각자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이다. 그러면서 감정을 가지고 신체의 오감을 통하여 각자의 경험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적이고 주관적이다.

기억이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고 다시 생각해 내거나 사물이나 사상에 대한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적인 기능이다.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기억개념에 의하면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지각은 단번에 동시에 설립되며 공존한다.”²⁾

-
- 1) 우리의 감각기관에는 촉각, 시각, 후각, 미각, 청각의 오감과 공감각이 있다. 공감각의 뜻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일, 또는 그렇게 일으킨 감각을 말한다. 소리를 들었을 때 빛깔이 느껴지는 것 따위이다.
 - 2) 송 영진 지음, [직관과 사유] (서울 ; 서광사, 2005), 126P
Henri Bergson ; 프랑스의 철학자(1859-1914), 참된 실체는 의식이나 생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얻어지는 순수 지속이며, 지속이 이완되면 물질화하지만 지속의 긴장은 생의 비약이 되며 창조적으로 진화하는 실존적 생명이라고 하였다.

베르그송에 의하면 '동물의 기억이란 동일한 신체적 노력의 반복에 의한 추억들의 획득은 습관이라는 과정일 뿐이며 진정한 기억이란 생의 사건들과 그 사소한 모든 것을, 말하자면 생의 역사를 자연적인 필연성에 따라 기록하고 의식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작용되어지는 모든 자극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일정한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것을 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새겨진 과거의 이미지들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지각작용들과 같이 혼합되어 더 많은 기억들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기억과 지각이라는 두 작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의 지각은 바로 과거의 기억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는 과거만을 지각하는 것이다.

아침에서 저녁이 오고, 하루가 가고, 계절이 가고, 한해가 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생활이나 생명의 연장을 생각하며 시간이 하나의 살아가는 과정임을 알게 된다. 우리에게 시간 속에서의 삶의 지속적인 변화를 기억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기억은 우리가 세계 속의 일원으로 더불어 사는 관계맺음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체험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시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이 세계에 도입됨으로서 인간의 주체성과 함께 등장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기억이 없이는 아무런 사고도 하지 못한다. 자신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서 기억을 상실하고도 정보를 지각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우리

저서로는 <시간과 자유>,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대한 시론 ; 1889>, <물질과 기억 ; 1896 > < 창조적 진화 ; 1907 >,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1932> 등이 있다.

의 기억은 단일 기능이 아닌 여러 개의 기능을 갖춘 조직체계를 가지고 하나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억들은 가치 판단에 따른 선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각되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싶은 것만을, 그리고 지우고 싶어도 잊혀 지지 않는 상처 같은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기억에 대항하여 기억을 지우며 다른 것이 되고 새로운 삶을 구성하는 그런 능력을 망각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기억이 우리의 의식에서 사라졌다 해도 그것이 존재를 상실해 버린 것은 아니라 일시적으로 잃어 버렸던 생각은 언젠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다.

망각이란 기억 자체의 존재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의해 재생될 수는 없지만 잠재적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때를 가리지 않고 다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망각의 의미는 이중적이다. 하나는 기억이 없어지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은폐된다는 의미인 것이다.”³⁾

“추억은 기억으로 머물러 있는 인상이다. 인상은 외부의 대상들이 감각기관에다 만들어 놓은 효과”⁴⁾로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잊혀 지지 않는 자취인 것이다. 망각은 이러한 추억의 상실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심상이다.

우리의 현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추억에 대한 혼돈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개인적이고 집단적이며 사적이고 공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시간의 형상들이라 할 수 있는 망각의 형태들과 관련되어 있다.”⁵⁾

3) 송 영진 지음, [직관과 사유] (서울 ; 서광사, 2005), 141p

4) Marc Auge, 김 수경 옮김, [망각의 형태] (서울 ; 동문선 현대신서, 2003), 20p

5) Marc Auge, 김 수경 옮김, [망각의 형태] (서울 ; 동문선 현대신서, 2003), 29p

망각은 우리의 삶 가운데의 흐르는 시간과 소멸하는 시간 속에서 형성되어진다. 기억과 망각은 그 둘 다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심상과 연관되어 서로 깊은 관계에 있다.

2) 심상의 현상화

인간의 개인적인 성장모습은 어떠한 부모 밑에서 어떤 유전자를 받는지의 선천적인 타고남과, 어느 시기에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되는지의 운명에 의한 외적인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로 인해 자아실현에 관하여는 각 사람에게 있어 타인과는 다른 독자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어린이가 교육받을 연령이 되면 그때부터 자아를 형성하고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시기가 시작되는데 자기만이 남과 다르다는 감정으로 고독감과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외부로부터의 요구와 이해되지 않는 내적인 충동에 대처하고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의식의 정상적인 발달에 방해가 되면 외적이나 내적인 곤란을 피하여 움추려들어 달아난다. 이러한 것이 인격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내면 깊숙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체험의 세계와 언어를 통하여 체험에 관계하는 사유의 세계를 갖고 있다.”⁶⁾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유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언어사용은 도구의 사용처럼 기억과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⁷⁾

이렇게 기억에는 신체적인 기억과 언어적인 기억으로 나뉘게 된다.

언어는 예전에 보았거나 들었던 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인간의 사고와

6) 송 영진 지음, [직관과 사유] (서울 ; 서광사, 2005), 281p

7) 송 영진 지음, [직관과 사유] (서울 ; 서광사, 2005), 250p

기억은 언어와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불가능해진다.

우리가 아직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인 유아기의 체험을 기억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체험들이 인성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러한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잠재의식 속에 있는 순간적으로 모호해진 수많은 생각들, 인상들, 이미지들은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해도 계속 우리의 의식적인 정신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의 의식은 체험된 기억들 중 몇 가지 이미지만을 명료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뿐이지만 잊혀진 생각들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들을 재생산할 수는 없지만 의식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체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우리의 체험된 경험들은 평소에는 흔적들을 통해서만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러한 심상들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억압되어 잠재되어 있던 많은 것들을 표출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억은 현실적인 것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통하여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표현해내는 것이므로 예술가들은 그들만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그들만의 표현으로 작품을 만들어낸다.

예술작품의 이미지는 삶의 경험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즉, 작가의 감성과 심상의 영향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작가의 창조적 작품은 작가의 미의식을 통해서 본 대상에 의해 주관적으로 다시 재구성된 표현이며 곧 예술가에 의해 변형된 형태로 탄생된 새로운 사물에 대한 이미지의 시각화이다.”⁸⁾

그러나 “의식만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규정하거나 현실적으로 각가지의 이

8) 윤 화자 지음, [울동적인 선의 이미지 형상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18p

미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인식할 수가 있다.

의식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무의식은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9)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심상’¹⁰⁾은 그때그때의 생각과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의식의 도움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2. 형태적 근거

1) 도입된 형태

우리의 감각에 비치는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은 서로 관련되고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어떠한 대상도 시간과 그에 따른 변화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자연계는 무한히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로서 거기에는 직선이나 완전한 정

9) Jolande Jacobi, 권 오석 옮김, [칼. G. 융 심리학 해설] (서울, 흥신문화사, 2006), 190p

10) 심상이란 우리가 과거에 감각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인 어떤 사물의 모양,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의 인상을 상상이나 기억으로 떠올린 것을 말한다. 심상에는 과거에 지각했던 자극물을 상기 시킨 것(상기표상, 기억표상)도 있고 여태까지 지각했던 일은 없으나 소설을 읽거나 남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에 떠오르는 심상(상상표상)도 있으며, 수학문제나 퀴즈 등을 풀려고 할때 떠오르는 심상(사고표상)도 있다. 상기, 상상, 사고를 총칭하여 표상작용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심상(image)의 종류에는 눈을 통해 본 색깔이나 모양 등을 떠올리는 시각적 이미지, 귀를 통해 들은 소리를 떠올리는 청각적 이미지, 코를 통해 맡은 냄새를 떠올리는 후각적 이미지, 혀를 통해 맛보았던 그 맛을 떠올리는 미각적 이미지, 피부를 통해 느꼈던 그 감촉을 떠올리는 촉각적 이미지가 있다. 또 여러 감각을 동시에 떠올리는 공감각적 이미지도 있다. 이 공감각적 이미지에서 떠오르는 두 감각은 각기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각이 동시에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

각형은 들어 있지 않으며 사건이 정연한 순서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데 어울려서 일어난다. 망막한 우주 공간까지도 휘어져 있는 것이다.”¹¹⁾ 이러한 우주의 태양계, 그 중 지구에서 생활하는 우리 인간들도 얽히고 설킨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 있는 세계 속 존재로서의 사회적 동물이고,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현재에 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존재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경험으로 인한 기억과 망각에 따라 형성되어진 우리의 내재된 심상은 내용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면서 독자적이다.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와 그에 따른 운동, 또 모든 조건들의 변화에 따르는 시간적인 경과, 이러한 것들은 모두 순환적이라 할 수 있다.

(원); 순환운동을 한다고 간주되는 원주와 동일시되는 원은 조형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정되어 있는 동시에 불안정한 동적인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이나 원반은 흔히 태양을 상징하며 또한 원은 다중성의 세계로부터 통일성의 세계로의 회귀를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와 관계된다. 이때 원은 천상의 세계와 완벽성을 상징한다. 완벽성이라는 특수한 개념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심리적 암시성이다. 용이 관찰한 것처럼 가장 낮은 단계의 구성과 사실적인 수의 세계를 재현하는 4각형이 내적 통일성, 곧 완벽성을 성취하지 못한 인간의 복잡한 상태를 상징함에 비해 원은 하나라는 궁극적 상태를 상징한다.

“원은 다면적인 마음의 전체성을 나타내며 인간과 자연 전체와의 관계까지 포함한다.”¹²⁾

"성인과 달리 예술가가 원주를 향해 간다는 말은 그들이 윤희의 삶, 그러니

11) Fritiof Capra, 이 성범, 김 용정 옮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서울 ; 신과학총서, 2002), 39p

12) Jolande Jacobi, 권 오석 옮김, [칼. G. 융, 심리학 해설] (서울,홍신문화 사, 2006),154p

가 원주가 표상하는 순환운동을 수용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¹³⁾

(순환; cycle); 모든 현상이 보여주는 순환적 특성은 원, 나선형, 소멸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순환적 과정이란 모든 운동이 최초의 상태를 지향하는 곡선을 따라 최후의 단계에 닿게 되는 과정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공간을 내포하는 모든 운동, 시간적 경과, 형태나 조건의 변화 등은 모두 순환적이다.

“완벽한 순환을 도해하면 그것은 서로 재립되는 방향에서 마주치는 이미지, 혹은 두 개의 기호로 재현되며 이는 감과 음, 떠남과 돌아움을 상징한다.”¹⁴⁾

(사각형); “사각형은 모든 기하학적 형상 가운데 가장 합리적으로 확실하고 정상적인 형상으로 인식되는바 이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떤 공간이나 대상을 사용하는 경우 애호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집, 방, 탁자, 침대 등이 그렇다.

물질의 4원소, 4계절, 인간의 생애가 밟는 4단계, 그리고 특히 컴퍼스의 4점은 모두 세계의 질서와 안정의 근원이 된다. 이집트의 상형문자 속에서 4각형은 성취를 상징하며 4각형의 형태로 진행되는 나선운동은 구성적인 힘, 혹은 물질화하는 힘을 상징한다. 4각형의 내부에 4각형을, 다시 4각형을 계속 그려나가면 마침내 한 점에 가까워진다. 그런 뜻에서 4각은 무한소, 즉 ‘4각이 난 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축어적 의미보다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면 여기서 4각형은 견고성과 안전성, 혹은 지상적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¹⁵⁾

본인은 작품 속에 순환적 cycle인 원이나 원의 변형과 왜곡된 곡선으로 형성된 grid의 형태를 도입하여, 자신의 내적 체계와의 연결성을 탐색하여 확인

13) 이 승훈 저, [문학상징사전], (주;고려원, 1995), 400p

14) 이 승훈 저, [문학상징사전], (주;고려원, 1995), 327p

15) 이 승훈 저, [문학상징사전] (주;고려원, 1995), 255-256p

된 내면과 그 감정들을 형상화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기억과 시간의 형상들인 망각으로 인한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심상의 형태들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2) 표현된 형태

“우리 인간들은 상징을 만들고자 하는 경향을 가졌고 무의식중에 물체나 모양을 상징으로 변용시킨다.”¹⁶⁾

물질적 재료를 써서 사물을 유형적으로 표현하여 시각에 호소하는 공간예술인 조형예술은 우리들의 정신적인 사상이나 개념들을 표현해야 하지만 형상이나 형태들을 통하여 표현해야한다는 것이다.

조형예술의 형태적 완성은 자연과 모든 사물들 속에 들어있는 창조적 생명력을 이끌어내는데 있다고 본다. 이는 자연의 창조적인 힘을 기본으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산출해내고 생산해 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감각에 비치는 모든 사물과 사건은 상호 관련되고 연결되어 있으며 다 같은 궁극적인 실재의 다른 양상 내지 현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를 개별적이고 분리된 것으로 구분하고 이 세계 내에서 고립된 자아로서 우리 스스로를 체험해 보려는 경향은 우리들이 측정하고 분류하려는 심상에서부터 연유되는 환각이라고 보여 지는 것이다.”¹⁷⁾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개념적 생각으로 조형작품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심상은 많은 것을 표출시켜 그 것에 관여한다고 생각된다.

16) Jolande Jacobi, 권 오석 옮김, [칼. G. 융, 심리학 해설] (서울 ; 흥신 문화사, 2006), 138p

17) Fritiof Capra, 이 성범, 김 용정 옮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서울, 신과학총서, 2002), 34p

돌은 존재, 응집, 혹은 자아와의 조화로운 화해를 상징한다. 돌이 소유하는 견고성과 내구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전체로서의 돌은 통일성과 강한 힘을 상징한다. 그러면서 부서진 돌은 해체, 심리적 불안, 부정형, 죽음, 전멸 등을 상징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많은 돌들은 모두 모양과 색깔이 다르다. 자연 속의 돌들은 하나하나가 우리들처럼 독자성을 부여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돌을 작품의 재료로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깔끔하고 육중하게 보이는 오석의 원이나, 휘말리어 구부러진 형태들의 기하학적 덩어리 자체는 살아 숨 쉬는 생명체처럼 유연하게 보이면서 계속하여 움직이고 반복되는 우리 삶의 변화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시기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표현한 것이다. 그 안에 새겨놓은 교차하여 움직이는 곡선들은 더불어 사는 우리 삶의 관계맺음 속에서의 서로 다르게 엮힌 인연들과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체험된 기억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우리의 지각과 감각으로 생겨난 관념과 기억은 과거의 체험을 내면에 재현하는 것이다.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형성되어있는 grid의 형태들인 그물망은 이렇게 서로 다른 기억의 상징적 표현이다. 여기에 부분적인 면의 음각을 새긴 것은, 응집된 기억들의 좌표이면서 그 기억들 속에서도 흩어지고 잊혀진 망각의 형태로서의 기억의 편린들을 시각화함으로서 본인의 내면적인 심상의 세계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3. 작품 분석



【작품 1】 어제의 부재, 1200 x 540 x 900 mm

【작 품 1】 어제의 부재

- . 재 료 ; Bronze
- . 크 기 ; 1200 X 540 X 900 mm
- . 제작년도 ; 2006
- . 제작기법 ; 점토 소조 후에 석고 틀을 만들어 F.R.P.로 성형하여 bronze로 주조하였다.

우리는 고립되어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과 사물 그리고 인간 세계에 던져지는 세계 속의 존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항상 이해하면서 보게 된다. 본인의 삶은 외부세계라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들의 연관 속에 있다.

움동적으로 흐르는 곡선의 형태는 살아가는 과정에 체감되었던 주관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관계맺음이고 계속되어 반복되는 삶의 연속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표면에 왜곡된 곡선으로 나타낸 grid 무늬와 그 그물망 속의 요철의 표현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들의 관계와 그 와중에 생겨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과 잊고 싶은 기억들을 표현하였다.



【작품 2】 어제의 부재, 오석, 190 X 190 X 1240 mm (2점)

【작 품 2】 어제의 부재

- . 재 료 ; 오 석
- . 크 기 ; 190 x 190 x 1240 mm
- . 제작년도 ; 2006
- . 제작기법 ; 석재 직육면체 기둥을 절단 후 포리샤로 연마한 다음 에어 툴과 정으로 선과 면을 음각하여 마감 처리하였다.

사각형은 원과 대비되는 삶의 세계를 상징한다.

땅에 뿌리를 둔 물질, 신체와 현실의 상징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내적통일의 세계를 성취하지 못한 불안정한 삶, 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상징한다. 사각형 형태를 도입하여 불안하게 서 있는 상태의 나와 상대적으로 편안해 보이는 다른 존재를 의식하는 상태에서 서로간의 관계맺음 속에서 형성되는 얽힌 기억의 편린들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기념비적인 자세로 서 있는 사각기둥의 모습은 본인의 삶의 과정 중에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기록으로서 살아가는 와중에 잊히거나 스치듯 떠오르는 기억의 단면들을 하나하나 맞춰놓은 것이다.

사각의 양면에 부드럽게 패어있는 부분들은 나이 들어 삶의 끝에 가까워있는 이때에 세월의 맞은편에 존재하는 불확실하고 변질된 Reminiscence(회상, 추억, 기억)에 대한 일종의 타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3】 어제의 부재, 오석, 660 x 190 x 480 mm (2점)

【작 품 3】 어제의 부재

- . 재 료 ; 오 석
- . 크 기 ; 660 x 190 x 480 mm
- . 제작년도 ; 2006
- . 제작기법 ; 석제 절단 후 포리샤로 연마한 다음 에어틀과 정으로 선과 면을 음각하여 마감 처리하였다

어제, 오늘 내일 계속되어 반복되는 삶의 연속성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체험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지각들. 이러한 시간의 지속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관관계를 나의 이념을 통하여 물체적인 것을 이용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잘 구르지 않는 두 타원형은 빼격거리면서도 끊을 수 없는 인연의 굴레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형성되어진 서로의 관계성과 우리의 좋은 기억들과 좋지 않은 기억들을 서로 엮킨 그물망 형태의 곡선과 떨어져나간 음각으로 나타내었다.



【작품 4】 어제의 부재, 이태리 대리석, 320 x 80 x 320 mm

【작 품 4】 어제의 부재

- . 재 료 ; 이태리 대리석
- . 크 기 ; 320 x 80 x 320 mm
- . 제작년도 ; 2006
- . 제작기법 ; 석재 절단 후 포리샤로 연마한 다음 에어틀과 정으로 선과 면을 음각하여 마감 처리하였다.

한 인간의 삶 속에서 지나간 세월의 흔적과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표현하고 싶었다. 삶이라는 인연의 굴레 속에서 파생된 시간의 흔적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이다. 지나간 삶의 흔적을 통해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고자 하였다. 순환적인 원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자유로웠던 내면속의 잠재되어 있는 심상들이 의식적인 선에 의해 일부 차단되거나 붕괴되어버린 모습을 크게 떨어져나간 부분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5】 어제의 부재, 오석, 400 x 300 x 220 mm

【작 품 5】 어제의 부재

- . 재 료 ; 오 석
- . 크 기 ; 400 x 300 x 220 mm
- . 제작년도 ; 2006
- . 제작기법 ; 석재 절단 후 포리샤로 연마한 다음 에어틀과 정으로 선과 면을 음각하여 마감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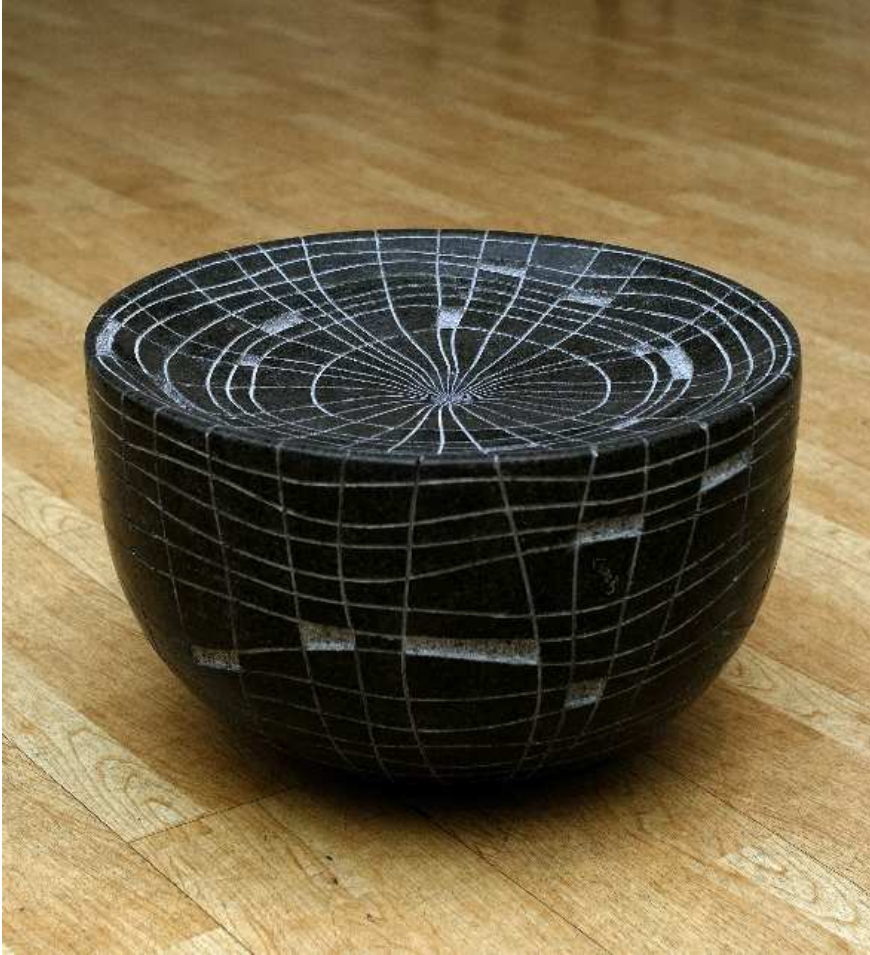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데에서 그 존재와 본성을 얻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관계와 관계, 만남과 만남 사이에서 삶을 영위해 나간다.

그러한 관계맺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연결고리들을 표현해보고 싶었다.

움동적으로 휘어진 형태는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인연의 굴레를 표현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파생되는 서로의 기억들을 곡선과 음각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6】 어제의 부재, 마천석, 480 x 480 x 300mm

【작 품 6】 어제의 부재

- . 재 료 ; 마 천 석
- . 크 기 ; 480 x 480 x 300 mm
- . 제작년도 ; 2006
- . 제작기법 ; 석재 절단 후 포리샤로 연마한 다음 에어틀과 정으로 선과 면을 음각하여 마감 처리하였다.

인간의 존재는 우주 속에서 한 점 먼지보다 작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세계와 우주는 인간의 존재가 도입됨으로서 인간의 주체성과 함께 등장하게 된 것이다. 세계는 그 안에서 복합적인 사건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연결들과 교체하고 겹쳐지고 통합되어서 전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주 속의 지구, 그 안의 우리들의 생활상을 반구 속에 담았고 그 세계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서 살아가며 생긴 우리의 기억들을 간격과 길이가 다른 흐르는 곡선으로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나 기억들을 음각으로 나타내었다.



【작품 7】 어제의 부재, 오석, 100 x 50 x 1150 mm

【작 품 7】 어제의 부재

- . 재 료 ; 오 석
- . 크 기 ; 100 x 50 x 1150 mm
- . 제작년도 ; 2006
- . 제작기법 ; 석재 절단 후 포리샤로 연마한 다음 에어틀과 정으로 선과 면을 음각하여 마감 처리하였다.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지각에 의해 형성되어 존재하게 된 기억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기억들과 잊어져버린 망각에 의해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심상의 연상이미지들을 되새기면서 제작하게 되었다. 인간의 삶이란 짧은듯하지만 참 멀고도 먼 시간의 여행이다. 그 긴 여행지에서 매순간마다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변화하고 또 반복되면서 살아간다. 하나의 서 있는 기둥은 세계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지만 항상 외로운 독자적인 존재인 인간의 형태이다. 서로 교차하면서 울동적으로 흐르는 왜곡된 곡선들은 서로 얽혀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관계맺음이고, 음각으로 표현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형성되는 우리의 기억들과 잊혀진 기억들이다.

III. 결 론

지금까지 본 논문의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작가의 감성적인 심상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다른 시기와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 자극에 의하여 지각되어 형성되어진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독자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체험된 기억들 중 일부는 기억하고 있지만 일부 잊혀진 기억들은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망각 속에 묻혀 있다가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과거의 기억을 이미지로 현실화 시키는 것은 의식적인 창조적 노력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본인은 기억과 망각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변질되어 가는지에 관심을 갖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개념적 사고를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단지 기억 속에서의 흐름이 어떤 감각을 생각나게 하는 다양한 정황과 삶 속에서 형성되어 존재하는 불확실하고 변질된 기억의 떨어져나가는 편린들과,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조각들을 찾아내 주관적인 심상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돌을 주재료로 도입하여 서로 어우러져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순환적인 원이나 원의 변형 등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그러한 삶 속에서의 인연이나 기억들을 왜곡된 곡선들의 grid무늬와 부분적인 음각으로 새겨 넣었다.

강해 보이는 돌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하여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반복되는 우리 삶의 변화를 표현하였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관계맺음으로 인한 기억과 추억들은 왜곡되어 흐르는 곡선으로 나타내었다. 곡선과 곡선의 각각 다른 간격들은 관계성의 다른 점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부분적인 면의 음각 역시 같은 맥락이다. 본인의 지나온 삶에 대한 기억을 통하여 떠오르는 환영들을 이미지화하여 변형된 형태로 형상화한 것이다. 개인적 체험에 의한 지극히 주관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여 작품화한 것이다. 그 것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며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애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을 통해서 심상과 기억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감추고 싶은 기억까지도 본인의 삶에서는 소중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삶의 정지된 공간 속에서 스쳐 지나간 옛 것들의 기억들에 대한 소중함과 그리움을 작품 속에 담아보고자 한 것이다.

기억에 의한 심상의 표현은 인간관계에 대한 탐색과 연구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내면적 성숙의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것이 이 작품의 창작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작품제작에 있어서는 더욱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기억들이 어떻게 현재의 삶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임할 것이다. 또 그 동안의 표현기법과 재료의 특성을 살리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접근 방법으로 다각적인 형태를 찾아 새로운 조형적인 측면이나 방법적인 면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이 승훈 저, [문학상징사전] (서울 ; (주)고려원, 1995).
- 송 영진 지음, [직관과 사유] (서울 ; 서광사, 2005).
- Friedrich Wilhelm Joseph Schelling, 심 철민 옮김, [조형미술과 자연의 관계] (서울 ; 책세상문고, 2002)
- Fritiof Capra, 이 성범, 김 용정 옮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서울 ; 신과학총서, 2002)
- Jolande Jacobi, 권 오석 옮김, [칼. G. 융 심리학 해설] (서울 ; 흥신문화사)
- Marc Auge, 김 수경 옮김, [망각의 형태], (서울; 동문선 현대신서, 2003).
- Renaud Barbaras, 공 정아 옮김, [지각(감각에 대하여)], (서울 ; 동문선 현대신서, 2003).
- 윤 화자 지음, [율동적인 선의 이미지 형상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6)

ABSTRACT

A Study on the Plastic Image by Image Expression

-Centering around My Work -

Suh, Kwang Ok

Major in Sculpture

Dept of Environmental Fine Art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

Sungshin Women's University

Art activity is made from the instinct of human beings, and it is the activity of human beings to be generated newly by 2 concepts to be memory and experience, and it is the images in the flow of time to be memorized and it is to show the inside of self by including the trace. To try to show image visually may be regarded as the course to discover the plastic language to be in ourself. So, art is the start from oneself, and what are immanent in artist herself(or himself) get to appear as independent expression, as they are expressed one by one.

What we can discover in the work of artists are creative images to be expressed actively. All the images appear by the interaction of outer power and inner power, and it can be said that they are expressed by psychological factor of sensitivity or mind etc. formed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experience.

Though we are existing, sensing and perceiving, our thinking doesn't transcend experience but guess all the things by experience, and the expression movement by the thinking may be perceived from outside and it is understood by the intellect of others. In the thesis, this researcher laid emphasis on trying to show my image as to how our consciousness to make us perceive, memorize and judge or expect a certain thing under the influence of environment which is surrounding oneself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is expressed and expressed with plastic artistic work by using the grid of distorted curve through introducing.

In the main discourse of chapter 1, this researcher unfolded which direction work will be expressed, mentioning how we, human being adapt ourselves and react in a certain environment as the background of work.

In the main discourse of chapter 2, this researcher discussed our memory to be carved by the experience to move endlessly by adapting oneself to time and environment and oblivion to be generated with change and continuity and explained how the image to be potential by such memory and oblivion is expressed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work.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3, this researcher concluded simply with general explanation about the contents which was made into form by theoretical background and clarified the will of study to be able to unfold profound work world as well as refined change in future work.